

자기 주처를 똑바로 보고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치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거를 녹이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란 얘깁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는 그 의식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쓰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이 모습과 생명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익 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도 해 주는 보시를 해야 하고, 행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행을 해야 하는 거죠. 남한테 착하게 마음을 쓰는 마음 보시가 첫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 보시는 못하니까 마음 보시라고 해야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 업보는 세세생생에 무너져서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해 주시오' 하지 마시고요. '해 주시오' 하면 돌이 되니까요. 장갑을 낀 손이나 장갑이나 똑같이 손이 속에서 움직여서 장갑이 움직여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하하 모든 업보를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내 업보를 무너뜨려 주고 나의 병고를 낮게 해 주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용도에 따라서 닦는 대로 거기 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약해서

공임없이 밀려오는 진통을 참아내야 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가족들과 의절이 된 상태라 누구하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모두 제가 잘못된 말과 행으로서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의 힘이 약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도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의 마음과 스님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이 인과를 좀 어떻게 녹일 수 없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봐요. 이 도리는 '죽든지 살든지, 살 리든지 죽이든지 아프게 하든지 안 아프게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선 딱 바버릴 때에 진통도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살 양으로 비몽비몽한다면 그거는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 감응이 될래야 될 수도 없고, 불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어요.

힘이 없고 있고가 없어요. 잘 하고 못 하고도 없어요. 그런 믿음이지. 자기를 믿는 힘!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역적 광년으로부터 풀고 오면서 경험을 하게 하고 쫓고 쫓기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르고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러는 지금

현재의 자기가 무심 도리(無心道理) 속에 부(父)가 있는 그 자체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이 다 붙어야 이것이 붙어, 광명스러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얼마나 진통이 오는데도 그렇게 하니깐 진통도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도 있어요. 죽고 사는 거를, 그거를 살렸다고 바둥거리고 애통 쓰고 움직여라 오하러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 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아주 그냥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려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사이 없이 떼어놓는 그 자체가 그대로 공부예요. 화두를 받아가지고 모두들 하는 사람이 십년 이십년 삼십년 해도 못하는 이 유가 있죠. 앉아서 좌선을 하면 좌선인 줄 알기 때

렇게 하는 동시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다, 이 도리를 알아 이러한 거죠.

포교에 더 우선을 뒤야 하지 않나!

한국 사회에서도 불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애들을 보내면 부처님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젊은 소견으로는 '너 부처가 되리라' 하는 그 중요하게 아니라 이제는 포교에 더 우선을 뒤서 불교도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천년 만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교든 가톨릭 교든 기독교든 다 타력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기독교를 다닌지 가톨릭 교를 다닌지 불교를 다닌지 나는 상관 안 합니다. 단 하나 있다면 자기 주처를 똑바로 보고 자기 주처를 믿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아라 이겁니다. 타의에서 구하지 말아라. 불교라는 것이 자의에서 구함으로써 모든 것이 불교지,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다 생명이예요. 생명을 떠나서 부처님이 어딴지 생명을 떠나서, 각자 자기들 떠나서 어디 기독교가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도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완성이 하나입니다. 자기 지혜가 바로, 바로 하늘님이요. 일체 통신력이 바로 한글님이요. 그것이 삼합이 한데 합한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는 기독교니까' 하고 말합니다. 결상을 쪼르러니 둥그렇게 봤는데, 요 결상이 내 결상이예요. 항상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데, 자기 결상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속담의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공생(共生)·공용(公用)·공체(公體)·공식화(供食化)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런 나무도 그렇고 전부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자 아닌 게 없어요. 불자는 불자 그대로예요. 불자. 생명이 의지해서 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불자. 난 무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심시오. 이 불자 중에서요. 도량에서도 이신도 저리로 갈까 봐 걱정, 이신도 다른 데로 갈까 봐 걱정, 이런 걱정은 왜 합니까. 안 오면 어떻게 온들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는, 나는 그래요. 나는 그전에 법당에서 설법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야, 나보다 더 훌륭한 데가 있으면 다들 가서 들어가. 다들 가거라." 그랬습니다.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런 것 한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전국의 지원에서 불사들을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못한다 이런 것도 난 걱정해 본 예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신도 안 옮겨 봐 걱정할 것 없어요. 왜? 한 사람이

면 어때요? 한 사람만 사람이 돼도 이 세상을 손안에 쥐고 다 해내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그러니 불자가 많아야 되겠다 적어야 되겠다 이걸 떠나서,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관(觀)해야만 됩니까 이럴 때, 기도라는 건 없어요. 왜?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됐지, 관하면 됐지 '나를 잡되게 해 주시오.' '이거 왜 안됩니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는 아니 됩니다. 이런 벌써 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지 난 기도라는 거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직접 관해라. 목마르면 직접 마셔라 이런 소립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야, 이 하늘이 열 쪽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죠. 아니 지금 죽으면 어떻게 이따가 죽으면 어

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낮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그러면 항상 바깥의 노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빌어야 하고, 항상 낮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불교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세세생생에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제가 없어서 너와 나와 말할 때, 벌써 이 전기가 전자와 전자 한데 합해지는 순간이예요. 합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내가 불이 들어오게 했다 내가 불이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얘깁니다.

알아들었어요? 양쪽 전자와 전자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쪽 눈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저쪽 눈이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마음과 마음은 전기와 같이 딱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눈이 낮게 해 줬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이 불이 아닌 데서 불이 번쩍 켜진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을 할 때 머리 든지 안 머리 든지, 욕을 하든지 욕을 안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을 해요. 그거를 자비라고 해요. 무조건 하는 것이 자비예요. 거기 이유가 없어서 사랑을 한다. 필 한단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예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업보가 불을 지르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제가 없는데 병 불을 지르가 어디 있겠어요? 없다는 그 자체는 너무 고정되게 있지 않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결여는 자제가 없고, 말한 자제가 없고, 이름을 부른 자제가 없어요. 자제가 없이 돌아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이예요. 그리고 돌아가니, 그걸 비유해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아주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다면 먼지 앉을 게 없나?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런 거를 몰라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 하나에도 지수화풍을 통해서 바로 우주개공이 있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이 낮게 해 주셨다고 안 하고 '당신네들이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낮게 했다.'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여러분이 한 열매가 열려서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면 상대도 없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게 했지요. 안 그런가요? 업보도 자기가 짓는 거요. 선보도 자기가 짓는 거요. 바로 애고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것이니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가판에서 와서
붙는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주격으로
쳐 넣으세요!

문이죠. 일어서면 좌선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입선이나 와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런 것이 다 한데 합쳐서 생활 자체가 그냥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그거를 모르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참선이고 야, 이러니까 언제 우주 전체를 한데 집어삼켜, 그 한데 집어삼키기 이전에 들어가 난 도리를 알고, 나라는 내 중생이 바로 내 한마음에 이끌어져야 하고 그래서 악업 선업이 들어있는 것도 과거에, 벌써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하는 게 내가 배낭에다 짊어지고 왔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대로 입력이 돼서 스스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한다면 바로 앞에서 입력된 거는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참 답답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데 그거를 살기를 바라고 그냥 그

죽고 사는 데도

놓고

생사도 놓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니까, 좀 이따가 죽은들 아 그깟 놈의 것 죽든 살든 어차피 이 낙엽도 떨어질 거, 귀찮게 그걸 왜 움직여주고서 죽을까 봐 겁내고 이걸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를 생기게 합니까. 그러니 좀더 놓아서, 죽고 사는 데도 놓고 생사도 놓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낮게 하는가요?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암환자라든지, 현대 의학으로써 나올 수 없는 그런 병들도 선원에서 와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낫다고 합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스님이 낮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공이 낮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도 기도원이나 그런 데가 있어서 예수님께 다 맡기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 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1년)**
 - ◆초급과정: 도량석, 종승, 각단예불, 삼보통칭, 각단불공 등
 -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 의식, 지장정, 시왕도정, 상응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전시식
 - ◆고급과정: 천수바라, 사다라니, 회의배라, 오공향, 유원승, 요점작업, 종사이언,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디림, 예수재 등
- 입 학 식:** 2008년 3월 6일 (오전 11시) (수업-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 입학자격:**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 강의장소:** 경북교구중무원 설법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중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 수 처:**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전화접수가능, 상시모집)
- 연 락 처:**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부설 교육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하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범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말기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 가 오리지널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형 최고의 수형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발이 보송보송 100%보장!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www.법왕정사.kr